

제주도의 대표축제 이야기



고 승 익(제주시관광축제위원장)

I. 서언

오늘날 문화관광축제가 지역문화의 창달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를 막론하고 서로 경쟁력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2년 이후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라 지역을 홍보하는 홍보마케팅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지역의 1차와 3차산업 활동을 동시에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1,178개 정도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축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지역에 가져다주고 있기 때문에 매년 축제 개최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첫째, 지역을 홍보하는 수단이 된다. 홍보수단으로서의 축제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됨으로써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둘째,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 지역적 소재로 포장된 축제이벤트는 향토역사와 문화를 지

키고 정체성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새로운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다. 지역의 문화를 주제로 하는 이벤트는 지역주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계기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지역산업을 육성시킨다. 지역의 축제는 지역 특산물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유통과 판매촉진에 기여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민예품을 소재로 하는 축제는 지역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축제가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이러한 긍정적 측면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매년 50여개의 다양한 테마를 가진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축제는 그 차별성에서 볼 때 축제의 선진국이나 국내의 다른 지역의 축제에 비하여 경쟁력에서 뒤쳐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축제 소재 발굴의 미흡과 좋은 축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획력과 자금의 부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제주도의 홍보활동과 문화창달, 그리고 관련산업을 진흥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

제주의 문화

는 제주도의 네 개의 대표적 축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제언을 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제주 축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대표축제 소개

1.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유일하게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여섯 차례나 선정되었고 축제예산 역시 다른 대규모의 제주축제가 2억원 내외인데 비해 이 축제는 그 4배 이상인 9억 원 정도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 축제의 유래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만 하더라도 제주도의 농촌마을에서 밭을 갈고 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1-2 마리의 소를 기르면서 농한기에 소를 놓아서 먹이고 겨우내 외양



정월대보름들불축제는 문화관광부 유망 축제로서 제주사람 누구나가 인정하는 제주도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다. 그 이유는 이 축제가 문화관광부 우수축제 2회(01년, 02년), 예비축제 2회(04년, 05년), 유망축제 2회(06년, 07년) 등 제주도에서는

간에 메어 놓은 소에게 먹일 좋은 들풀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간간 지대 초지의 해묵은 잡풀을 없애고, 병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마을별로 늦겨울에서 초봄 사이 들판에 불을 놓는데서 착안하게 된다. 정월대보름들불축제는 바로 이러한 제

..... 제주의 문화

주선인들의 목축문화인 들불농기(제주어로 ‘방에’)에 관한 옛 생활풍습을 오늘에 재현한 축제가 된다.

북제주군은 지난 1997년에 이 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하기 시작하여 올해로 11회째를 맞고 있다. 특히, 금년의 축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북제주군과 통합을 한 제주시가 주최와 주관을 하였다. 이 축제는 그 내용면에서 볼 때 타 지방의 축제와 크게 차별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축제의 소재를 불, 말, 달, 그리고 오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의 축제는 3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에서 개최되었는데 대주제는 무사안녕과 풍년기원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였다.

축제 첫째 날인 3월 1일의 첫 마당 행사는 ‘도민대통합의 날’로 정하여 오전 10시 30분부터 도내 읍면동 풍물놀이패가 출연하여 도민이 함께 어울려 신명을 올리는 전도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집줄농기 경연대회와 제주어 말하기 대회, 소원기원 메시지 전달, 도민 대통합 녁동배기 대회, 난타공연, 햇불대행진, 달집 태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축제 둘째 날인 3월 2일의 둘째 마당은 ‘무사안녕과 평화기원의 날’로서 오전 11시의 들돌들기를 시작으로 말사랑싸움놀이, 해동검도 시범공연,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전국 B-BOY 초청대회, 외국 자매도시 공연을 비롯하여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밤까지 이어졌다.

축제 마지막 날인 3월 3일의 셋째 마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성공기원의 날’로서 오전 11시의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발갈이 농경문화 시연, 미국 센타로사시와 중국 래주시 등 외국 자매도시공연, 국악명창 축하공연, 난타공연, 햇불 및 달집

점화, 오름불농기와 오름정산 화산분출쇼, 조명 및 레이저쇼, 불깡통 돌리기 등으로 축제 분위기는 정상에 오르게 되고, 전통놀이와 풍물놀이 한 마당이 펼쳐지는 가운데 축제에 참가한 도민과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져 강강술래를 도는 것으로 그 대미가 장식되었다.



이 축제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말사랑 싸움놀이’가 된다. 이 놀이는 암말을 사이에 두고 두 마리의 수말이 암말을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싸우는 경기로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르고 최종적으로 우승한 챔피언 말에게는 암말과 교미를 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를 구경하기 위하여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다.

‘집줄농기’ 프로그램도 재미가 있다. 제주도 사람들은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나지막한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그 지붕을 ‘띠’로 덮어놓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지붕을 새로 단장하여야 했던 것이다. 이를 축제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 집줄농기가 된다. 이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가 참여하여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흥겨운 놀이마당이 된다.

제주의 문화

들불축제는 문화적인 측면 이외에 경제적으로도 제주도에서 열리는 50여개의 축제 중에서 그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 4월 17일에 실시한 '2007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축제 첫날에 75,000명, 둘째 날에 43,000명, 마지막 날에 180,000명 등 모두 298,000명이 축제장을 방문하여 1인당 22,395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3일간의 축제기간동안 32,184명의 관광객이 방문함으로써 69억원의 관광수입을 올렸고, 7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378명의 고용 증대, 그리고 50억원의 지역소득 증대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 축제는 육지부의 문화관광부 지정축제에 비하여 축제기간이 너무 짧음으로써 관광

객을 유치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고, 축제장 진입로가 하나뿐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눈비가 내릴 경우의 대비책이 없으며, 축제 캐릭터상품의 개발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축제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최일수를 6일 정도로 하고, 축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보조도로 건설과 함께 평화로에서의 안전한 진입을 위하여 지하도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본다. 눈비가 내리더라도 축제 관람이 가능하고 제주 중산간 마을의 옛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대형 들불축제 테마관의 건립도 필수적이다.

2. 서귀포칠십리축제



..... 제주의 문화

서귀포칠십리축제는 제주도에서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와 더불어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지정 받음으로써 서귀포시에서 열리는 축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다.

칠십리축제의 주 테마가 되는 ‘칠십리’는 2,200여년 전 중국 진시황제가 보낸 ‘서복’이라는 사 람이 정방폭포를 거쳐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전설 에 의해 서귀포라는 지명이 탄생된 이래, 조선시 대에 와서 정의현 남문으로부터 표선면 가시리를 지나 남원읍 한남리, 그리고 서귀포시 상호동을 거쳐 서귀진성에 이르는 거리가 70리이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라고 한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서귀포시의 동쪽 쇠소깍 해안으로부터 서쪽 색달동 천제연 하류까지의 해안선 길이가 70리이 기 때문에 ‘서귀포칠십리’라고 불린다는 설도 있 다. 따라서 서귀포시는 지난 1995년에 그동안 ‘칠십리’라는 말로 시가 쓰여 지고 노래가 불려 지면서 서귀포시의 독특한 언어문화로 정착된 칠 십리를 테마로 이 축제를 만들게 된 것이다.

작년에 열두번 째를 맞은 칠십리축제는 그 주제를 ‘칠십리 바다와 불로초’로 하여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개최되었는데, 관광객 4만 명을 포함하여 모두 15만 명이 축제장을 찾았다.

축제 첫날인 9월 29일에는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로서 2시간에 걸쳐 3천5백명이 참가한 칠십리 대행진을 시작으로 식전 타악기 공연과 특별자치도 출범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축제 둘째 날에는 어업인 한마당, 시립합창단과 관악단 공연, 도립예술단 공연, 중국기예단 공연, 불로초를 찾아서 떠나는 민속무 공연, 노젓기 대회, 해녀태와 수영대회, 전국 장기대회 등이 펼쳐졌다.

축제 셋째 날에는 정의골소리패 공연을 시작으로 해순이 섬돌이 선발대회, 청소년 가요제, 실버 한마당, 전국 바다낚시대회, 칠십리 사생대회, 건

경건기대회 등이 열렸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서귀포시민 한마당 동아리 공연을 필두로 서귀포민속보존예술단 공연과 탐라민속 재현행사가 열렸고 칠십리 가요제를 끝으로 축제의 막이 내렸다.

이밖에도 불로장생 등 달기, 건강음식 만들기, 제주전통의 돌구멍 낚시, 제주 통나무배인 테우 체험, 웅기, 한지, 초가, 천연염색 등 다양한 체험 행사, 그리고 사진전과 서각전에 이르기까지 서귀포의 모든 문화를 한 군데서 감상할 수 있는 축



제였다.

칠십리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누가 뭐라 해도 칠십리대행진이다. 이 행진은 작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의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서귀포시로 통합됨으로써 17개 모든 읍·면·동이 함께 참가하여 두 시간에 걸친 거리축제가 됐다. 이 행진은 지역주민들이 자기 고향의 전설, 민속·문화 재현 등 특색 있는 거리공연을 준비하여 연출함으로써 주민화합과 함께 자기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정의현감과 대정현감 재현행렬이 대행진에 참여함으로써 통합 서귀포시의 위상을 빛내는 행사가

되었다.

또한 이 축제는 바닷가 행사장에서 개최됨으로써 제주 특유의 전통어업을 계승하고 보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역 어촌계끼리 경연하는 해녀태왁 경기는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동참하여 열띤 응원전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됐는데, 타투, 이중섭 그림 관화체험, 빕떡체험, 가훈씨주기, 고망냥시 프로그램은 인기가 매우 높았다.

그리고 행사를 주관한 서귀포시축제위원회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축제 총예산이 3억3,800만 원이고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1인당 평균 22,400원을 소비함으로써 이 축제 개최에 다른 경제적 효과가 37억3,300만원으로 나타나 서귀포시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축제는 축제광장이 너무 비좁고 행사장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으며 서귀포 칠십리 문화를 종합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테마관의 부재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의 자리매김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는 교통이 편한 지역에 축제광장을 새로 크게 조성하고 대규모의 칠십리 테마관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키워나가야 한다.

금년의 축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천지연광장과 시내일원에서 개최되었는데, 두 차례에 걸친 축제 관계자 워크숍과 수차례의 축제 전문가 자문으로 작년과는 다른 차별화된 축제로 기획되었다.

축제의 기본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기원과 시민화합의 장으로 하고,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이야기 전개형 체험축제로 구성하고, 관광축제로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축제를 지향하였다.

특히, 문화관광부 축제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주무대를 옛 서귀진성 모습으로 꾸미고, 천지연 야외공연장을 불로초 테마관으로 만들고, 시내일원의 거리문화 공연을 강화하고, 칠십리야외 상설무대를 만들고, 해양무대를 꾸밈으로써 축제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였다.

이 축제가 그 연륜이 길지 않음에도 제주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부 유망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축제위원회의 명품축제 만들기에 대한 열정 때문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칠십리축제는 향후 축제광장이 새로 조성되고 문화관광부 축제에 걸맞는 예산의 확보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축제로의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이다

3. 제주왕벚꽃축제

제주왕벚꽃축제는 문화관광부 예비 축제로서 제주도에서 매년 열리는 수많은 축제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축제 중의 하나다. 금년 3월말부터 4월초까지 거리축제를 포함하여 5일간 열린 왕벚꽃축제는 전농로 벚꽃거리축제 관람객 2만 명을 포함하여 제주도 역사상 처음으로 32만 명의 관람객이 축제장을 방문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벚꽃축제의 테마가 되는 왕벚나무는 제주 자생의 나무로서 프랑스의 따계신부가 서귀포시 신례리에서 이 나무를 채집하여 독일학자에게 보냄으로써 왕벚나무가 제주도 자생의 나무임이 외국에 까지 알려지게 된다. 이러한 제주원산의 왕벚나무는 장미과에 딸린 낙엽교목으로서 제주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나무를 ‘사오기’ 또는 ‘사옥’이라고 불러왔는데, 나무의 재질이 단단하고 정밀하며 그 색이 아름답기 때문에 예로부터 귀중한 가구재로 많이 쓰여 왔다.

..... 제주의 문화



제주시 용강동 산 14-2번지에는 우리나라 천연 기념물 제 159호로 지정돼 있는 자생의 왕벚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제주시 관음사 경내와 5.16도로 변인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도 자생의 왕벚나무가 보호되고 있다. 이 축제는 이러한 왕벚나무가 일본의 나무가 아니라 우리 제주 고유의 나무라는 점을 널리 홍보하고 이른 봄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벚꽃을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1992년에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다.

이 축제를 맨 처음 시작한 제주도관광협회는 예로부터 왕벚나무가 우거지고 그 꽃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제주시 전농로 거리에서 1996년까지 5년 동안 이 축제를 주관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1997년부터는 축제의 주최기관이 제주도관광협회에서 제주시로 바뀌게 됨으로써 이 축제는 제주시의 가장 큰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다.

제주시는 첫해에 3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시작하여 2000년도부터는 매년 약 1억 5천만 원의 축제 예산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관광축제로 육성시켜 나가기 시작하였다. 금년에 열여섯 번째를 맞은 제16회 제주왕벚꽃축제는 제주시가 주최하고 제주시관광축제위원회가 주관하여 ‘화려한 왕벚꽃과 새 봄의 향연을’이라는 대주제로 지난 3월 28일과 29일 양일간의 전농로 거리축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제는 3월 30일의 개막식과 함께 4월 1일까지 3일 동안 이어졌다.

금년의 축제는 제주자생의 왕벚꽃을 매개로 하여 55만 제주도민과 550만 관광객의 만남의 무대와 5000년 제주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어울림 마당이 됨으로써 축제 참가객 모두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제주 봄의 추억과 낭만을 만들어 주었다.

거리축제는 3월 28일의 청사초롱 점등식에 이은 풍물패 행진을 시작으로 벚꽃나무에 소원기원의 축등을 매달아 놓음으로써 제주시에 주민과

제주의 문화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야간 명소를 하나 더 탄생시켰다.

본 행사는 첫째 날 그 테마를 ‘열린축제’로 설정함으로써 새봄맞이 축하 콘서트와 함께 왕벚꽃 테마 전시관, 국제 자매도시 상품 홍보관, 봄꽃 전시 및 판매장, 제주왕벚꽃 사진전, 꽃과 웰빙관, 왕벚꽃 한지공예, 왕벚꽃 종이접기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열려 축제 참가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제주왕벚꽃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다.

둘째 날은 ‘젊음의 축제’를 그 테마로 함으로써 환경 그림 그리기, 재활용 모형 만들기, 캔모으기 경진대회, 청소년 풍물패 공연, 청소년 댄스 및 장기 경연대회, 퓨전댄스인 B-boy 공연, 대학 그룹사운드 공연 등 청소년들이 만들고 공연하는 축제가 되었다.

축제 마지막 날은 참여 및 화합의 무대로서 왕벚꽃길 걷기, 왕벚꽃 자생지 탐방, 관객과 함께 하는 열린 무대, 제주사투리 공연, 봄맞이 의상 퍼포먼스 등이 이어짐으로써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가 되었다.

이 축제의 가장 큰 장점은 제주도의 다른 축제와는 다르게 개막식부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의 축제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젊은이의 축제라는 점이다. 환경그림그리기 대회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젊은 청소년들에게 환경사랑에 대한 의식의 고취와 함께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장차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미술인을 육성하는 축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축제에서 가장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봄맞이 의상 퍼포먼스’가 된다. 이 프로그램은 축제 마지막 날 밤에 1,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데, 1부는 제주갈옷 패션쇼, 2부는 웨딩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퍼포먼스는 갈옷과 웨딩복장을 한 모델들과

눈부시게 아름다운 벚꽃 그리고 형형색색의 관객이 두 시간 동안 함께 어우러지는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을 만든다.

그러나 제주왕벚꽃축제의 묘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온 세상을 하얗게 수놓은 벚꽃광장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또는 친구끼리 정답게 모여 앉아 휴식을 즐기면서 야외에서 음식을 맛있게 맘껏 먹어보는 재미를 맛보는 일일 것이다.

이 축제는 금년에 문화관광부 예비 축제가 됨으로써 지역축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관광축제로 성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제주도에 가져다주고 있다.

제주대학교 조문수 교수팀이 분석·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 축제의 직접 투자효과는 축제 조직위원회 지출금 1억 5천만원과 참가객 지출금 34억 2,352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35억 7,352만원이 축제기간동안 사용됨으로써, 이 축제가 향후 1년 동안 제주지역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105억 7,761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 축제는 축제광장이 너무 비좁고, 본격적인 축제기간이 너무 짧으며, 축제예산이 너무 적고 축제테마관이 소규모인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중의 하나인 제주왕벚꽃축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넓은 축제광장의 확보와 함께 본격적인 축제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연장하여 관광상품으로서의 축제가 되도록 하고, 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대규모 축제테마관을 축제기간 동안 운영함으로써 볼거리의 추가 제공과 함께 우천시에도 관람이 가능한 전천후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제주왕벚꽃축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그 꽃도 제주 원산의 왕벚꽃을 그 테마로 하

..... 제주의 문화

여 개최되는 축제이니만큼 축제 관계자들이 좀 더 노력한다면 제주도의 여느 축제보다도 그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4. 탐라문화제

탐라문화제는 지난 1962년에 순수예술제인 ‘제주예술제’로 시작되어 해마다 10월의 첫째 주 금요일에 시작하여 6일 동안 열리는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문화축제의 하나다.

이 축제는 제주만의 독특한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되새기면서 동시에 제주문화의 정체성과 차

1965년 제4회부터는 향토문화축제로 바뀌면서 그 명칭도 한라문화제로 변경되었고, 1995년 제34회 대회부터는 순수 민간주도의 문화축제로 발전함으로써 2002년에는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 지역민속축제가 되면서 그 명칭도 탐라문화제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고·양·부 삼성신화와 탐라국 개국 이래 창출된 제주만의 독창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주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 전통문화축제라는 점이다.



별성을 널리 알리는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함으로써 02년부터 04년까지 3년 동안 계속하여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 지역민속축제로 선정되었고, 05년부터는 문화관광부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되어 매년 2,5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탐라문화제는 1962년에 한국예총제주도지부가 제1회 제주예술제로 개최하기 시작하였으나

2006년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작년의 제45회 탐라문화제는 4개 부문, 13개 분야, 75개의 행사가 제주도 전역에서 성대하게 펼쳐짐으로써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대화합의 한마당축제인 동시에 탐라국 이래의 역사·문화·예술의 향기가 넘쳐나는 축제로 열렸다.

작년 축제의 테마별 구성내용을 보면, 기원대축제, 본행사, 참여행사, 닫는마당 등 네 개의 주제

제주의 문화



별로 짜여있다. 기원대축제는 유교식 제례인 탐라문화제 서제를 시작으로 제주목관아지에서 제주신산공원까지 이어지는 길놀이축제, 탐라문화제의 역대 사진자료를 소재로 제주시내 가로등을 활용한 역사의 깃발전, 그리고 유교식 제례 및 만덕봉사상을 시상하는 만덕제가 행해졌다.

본행사는 식전공연, 개막식, 불꽃축제, 개막축하공연 등의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팀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걸궁팀이 참가하는 전통문화축제, 우리나라의 놀이성과 예술성이 두루 담긴 중요무형문화제 초청 공연과 제주만의 독창적인 전통문화가 담긴 제주도 무형문화제 초청공연인 무형문화제 축제, 박물관을 순례하는 제주역사축제, 이동 박물관과 제주 전통의 문화체험 마당인 향토문화축제, 공연예술과 전시예술이 함께 하는 예술축제로 열렸다.

참여행사는 제13회 정의골 민속한마당축제와 제15회 덕수리 전통민속재현행사 등의 마을축제를 시작으로 씨름대회, 장애인 장기대회와 바둑대회, 노인민속경연대회 등 제주인 대화합축제와

사진, 민요, 시조경창, 문학백일장, 아동문학의 밤, 학생미술실기대회, 한시백일장 등 참여예술행사, 그리고 농협의 한마당축제인 신토불이 축제가 열렸다.

닫는마당은 6일간의 축제에 대한 마무리 행사로 민속예술 4개 팀과 걸궁 4개 팀의 경연에 대한 시상식에 이어 모든 축제 출연진 및 풍물패단원,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한마당축제로 열렸다.

그러나 이 축제는 금년으로 46년의 연륜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축제장의 미비로 그동안 사용하던 신산공원을 떠나 해변공연장

특설무대로 주 행사장을 옮기고 있으며, 축제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관계로 탐라문화제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젊은 층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점이 이 축제의 문제점이다.

따라서 탐라문화제가 향후에도 제주도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로 계속하여 개최되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축제장으로서의 주 무대를 갖춰야 하고, 축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청소년과 중·장년층 모두가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축제로의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또한, 이 축제는 매년 2월부터 출연단체에 대한 섭외가 시작되어 그 해 10월에 축제가 개최되기 까지 적어도 9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축제이니만큼 축제를 주최하는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내에 상설사무국을 두어서 축제의 계속성과 함께 품격을 높여나가야 한다.

금년의 제46회 탐라문화제는 '천년의 탐라문

..... 제주의 문화

화! 세계속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주시 해변공연장 특설무대를 주 행사장으로 하여 제주도 일원에서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축제의 방향을 보면, 예년과 달리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탐라문화유산으로 대변되는 제주문화의 우수성과 전통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 전통문화축제를 100만 제주인의 한마당 축제로 펼쳐 지방화·세계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가는 제주인의 강한 의지를 표출하는 축제, 제주의 역사·문화·예술을 축제의 테마로 하여 제주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연출하는 전통문화축제로 설정하고 있다.

금년 행사는 축제 추진방침도 새로이 변경하여 축제의 주관 및 참여단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순수 민간주도의 축제로 개최하고, 제주도의 1차산업과 문화와 관광을 탐라문화제와 연계시켜서 축제를 관광자원화 하고, 축제의 신명성이 고조될 수 있도록 축제장과 도 전역에 걸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한다.

탐라문화제는 탐라국 개국 이래 창출된 제주문화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축제인 만큼 제주도는 이 축제를 제주문화를 모태로 100만 내외 제주도민과 550만 국내외 관광객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서로 화합하는 세계적인 전통문화축제로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III.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제주도의 대표축제들은 제주 사람들이 그동안의 도시화 과정에서 서로 단아두었던 마음속 울타리를 허물고 서로 만나서 막걸리 한 사발 앞을 두고 웃음꽃을 피움으로써 서로의 가슴속 사연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마당이 되고 있다.

또한 550만으로 추산되는 금년에 제주도를 방

문한 관광객들도 제주도에서 사시사철 열리는 축제장을 찾음으로써 제주사람과 제주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축제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도를 대표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우수축제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995년에 이천도자기축제 등 시범축제 2개를 지정한 이래 그 이듬해부터는 지방관광의 육성 차원에서 매년 ‘문화관광축제’ 27개와 ‘예비축제’ 25개를 지정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제주축제 중에서는 2006년까지 ‘들불축제’가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서귀포칠십리축제’가 예비축제로 각각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7년에는 이들 두 축제가 모두 유망축제가 되고 ‘제주왕벚꽃축제’가 처음으로 예비축제로 지정됨으로써 문화관광부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주축제는 3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제주도에서 매년 개최되는 50여개의 축제 중에는 아직도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문화관광부 지정 최우수축제나 우수축제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제주축제가 안고 있는 일정한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제주축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축제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축제로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길이 된다.

첫째는 수준 높은 축제를 기획하고 시연하는 데 따르는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2005년의 문화관광축제 운영평가서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축제가 24개, 7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축제가 31개,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축제가 182개 등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237개의 축제가 3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축제 중에서는 ‘정월대보름들

제주의 문화

불축제' 만이 약 9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축제는 2억원 이하의 예산만으로 수준 있는 축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는 제주도에는 축제 전문가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제주도 인구 55만 명 중에서 축제를 모른다고 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제주도민들이 축제에 대하여 열정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축제 전문가가 축제를 기획하고 시연하기까지를 너무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가 축제를 운영하는데 있어 시비꺼리가 많게 되고 처음 몇 번의 실수는 이해해줌으로써 축제가 시행 착오를 경험하면서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축제가 되고 세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참고 견딜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하는데 제주사람들은 축제에 관련한 금년에 꼭 성공을 거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축제 전문가들로부터금 설 땅을 잃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셋째는 축제는 공짜라는 생각도 이제는 버려야 할 것 같다. 좋은 축제의 육성에는 그에 알맞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누구도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산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축제를 맡아 주관하는 측에서는 골머리가 아프게 된다고 보면 된다. 1999년에 개최되어 그 연륜이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축제로 자리매김한 '함평나비축제'의 경우 테마관을 만들어서 5,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우리 제주도의 축제도 모자라는 예산을 입장객이 내는 돈으로 일부를 보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넷째는 시장성의 한계다. 제주도는 그 인구가 55만 명에 지나지 않은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축제를 지원하는 무대, 조명, 영상, 기록, 음향, 출연진 섭외, 화장실 등의 관련 업체가 영세하며, 육

지부에서 관련 장비를 들여오는데도 상당한 물류비용이 들기 때문에 육지부와 비슷한 예산으로는 그 수준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섯째는 축제광장이 없다는 점이다. 영국의 '에딘버러축제'가 성공하는 이유는 그 프로그램이 우수하다는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넓은 광장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매년 열리는 대규모 축제의 경우 '들불축제' 만이 충분한 축제광장을 가지고 있을 뿐으로 제주시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로서 2007년에 32만 명이 찾은 '왕벚꽃축제'는 마땅한 축제장이 없기 때문에 매년 제주시 공설운동장 서편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인 '서귀포칠십리축제'의 경우도 마땅한 축제장이 없기 때문에 매년 천지연광장을 이용함으로써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과 천지연폭포를 관광하는 관광객이 서로 뒤섞이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다. 상가주민들은 축제를 위하여 주차장을 축제 기간동안 비워두는데 인색함으로써 축제의 규모화를 막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축제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축제의 경우 5일 이상 개최되는 축제비율이 71%인데 비하여 제주도에는 5일 이상 개최되는 축제가 하나도 없다. 이렇듯 제주축제는 그 개최일수가 짧은 관계로 여행사가 여행 상품을 만드는데 있어 결정적인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축제는 관광객은 없고 지역주민만 있는 축제가 되고 있는 지도 모른다.